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개표 오류 정황 4번 선거에서 7곳..."100표 이상 투표수 차이"	사회	-
2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올렸다.	세계	-

(1)기사/뉴스요약

개표 오류 정황 4번 선거에서 7곳..."100표 이상 투표수 차이"

[앵커]

개표 오류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처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지방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윤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당일 유권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 후 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대로 투표했다면 투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를 시인한 것도 백 표가 넘는 투표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간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선 선거 당일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 500표가량 적었고, 2018년 대구 효목2동에선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179표 차이가 났습니다.

4번의 선거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1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난 곳만 모두 7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읍면동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일 인천 서구 가좌 3동과 4동에선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정확히 520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KBS의 문제 제기에 서울과 인천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전북 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적인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7곳에서 발견됐다.**

## (2)기사/뉴스요약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올렸다.

[앵커]

이번 대회 최대 이번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마흔 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이 날린 슈트 스물일곱 개를 모두 막아낸 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포르테의 기습적인 헤더도, 토레스가 날린 낮게 깔리는 슈팅도 카보베르데 보지냐의 벽에 막힙니다.

["페란 토레스! 그러나 잡아내는 보지냐입니다. (와, 페란 토레스 화나겠는데요.)"]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의 보지냐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무명 골키퍼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돋보인 보지냐의 선방 덕분에 축구 변방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과 비기는 이번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 낸 순간, 보지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활약 덕에 5만 명에 불과했던 SNS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보지냐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할머니'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해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등 록명으로까지 쓴 겁니다.

보지냐의 어머니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높은 비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연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핵심: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서북부 대성양상에 있는 공화국	한국민족문 화대백과
2	-		